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고발

김상준

서론

'매춘 아르바이트', '매춘의 현실-사회구조적 분석', '전화방에서 폰팅으로-퇴폐의 숨은 방', '월조교제-10대 신중 아르바이트', '성, 사는 자와 파는 자', '러브호텔',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천호동 텍사스에 붙은 꺼졌는가', '65세 고개드는 성', '무너지는 성운리'

이런 제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길거리 신문 가판대에 진열된 조잡한 음란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목차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목들은 3개 방송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부제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길거리의 잡지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 있다.

한 술 더 떠 방송사들은 초상권의 보호와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첨단 방송기자재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하지만, 이런 점들이 더욱 시청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쇄매체와는 달리 영상매체에 담겨진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길거리에 널린 저질 잡지는 특정한 계층의 독자들만 이용할 뿐이지만, 영상매체는 세대와 계층에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안방에 침범하여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3개 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는, SBS <뉴스추적>, <추적 사건과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KBS2 <추적 60분>이며, 끼워넣기로 사회고발을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 KBS <뉴스>의 뉴스추적, SBS <주병진의 데이트 라인> 등 9개나 된다. 가히 현재 우리나라 방송계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르네상스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심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내용과 취재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쏟아내는 방송 아이템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재과정에서도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히 드문 사회병리를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하위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사회병리를 고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이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모든 잘못된 점을 변명할 수 있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사회병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당사자인 제작진은 반대로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 구절처럼, 남의 눈에 거는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다루는 프로그램의 아이টে을 공명정대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진정한 힘을 얻고 사회병리를 발견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도 따가운 비판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문제부터 지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MBC <PD수첩>과 SBS <뉴스추적>을 중심으로 (97년 10월 방영분부터 98년 10월까지 1년간)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나친 선정주의

현재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지나친 선정주의이다.

1998년 8월 14일 발표한 방송위원회의 '시사고발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보고서를 보면 1998년 6월 방송분의 34개 아이টে을 중 8개가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MBC <PD수첩> '비아그라, 성혁명의 묘약인가', '공주다방 4자매의 인생유전', '원조 교제-10대 신중 아르바이트', SBS <뉴스추적> '매매되는 탈북자들', '양지로 나온 동성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IMF시대 그 위험한 선택' 등이 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우연히 98년 6월에 집중된 것은 아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간 SBS <뉴스추적>이 성과 관련된 아이

템을 방송한 것은 7회(아동 성추행, 민수의 이상한 체험, 만화침공, 누군가 엿보고 있다, 매춘 아르바이트, 양지로 나온 동성애, 매매되는 탈북자들)였으며, MBC <PD수첩>은 4회(원조교제, 비아그라-성혁명의 묘약인가, 공주다방 4자매의 인생유전, 위기의 가정)였다.

따라서 9개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선정적인 소재를 경쟁적으로 방영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매주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성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우리 사회가 현재 성적인 혼란과 타락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다.

성적인 소재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성이 공론화 되지 못하게 되면, 음지로 숨어들어 왜곡되고 은폐되어 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을 건전하게 공론화 하면, 우리사회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되어 도리어 병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게된다.

따라서 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장을 방송매체가 이끌어낸 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구체적인 방송내용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이 매춘을 비난하면서, 시청률을 위해 ‘TV 매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문화의 전파

지나친 선정주의는 결국 뒷골목의 하위문화를 파고들게 되고, 이것은 안방에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병리는 항상 극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전반에 퍼지게 된다.

매스컴은 이미 사회병리가 일반화되었을 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방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일반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마전 서구사회에서나 존재하리라고 생각했던 스와핑(부부교환섹스)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모든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게 되었다. 그만큼 스와핑은 뉴스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던 “동성애”는 이제 거의 모든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예전보다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각 방송사의 사회고발프로그램이 선정적이면서도 희소성을 띤 뉴스거리를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희소하고 선정적인 뉴스는 우리사회의 뒷골목에서 저질러지는 일그러진 성문화 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사고발프로그램은 뒷골목 문

화를 영상매체라는 강렬한 매체에 실어 급속도로 사회전반에 하위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97년 9월 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전화방에서 폰팅으로-퇴폐의 숨은 방’ 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전화방에서 불륜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 전화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불륜관계를 넘어 매춘을 중계하는 곳으로 발전한다. 이후 전화방은 철퇴를 맞아 많은 곳이 문을 닫았으나, 전화방이 더욱 발전되어 컴퓨터로 상대방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더욱 은밀하게 불륜과 매춘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97년 11월 4일 SBS <뉴스추적> ‘매춘 아르바이트’ 에서는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여고생들의 매춘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어떤 PC통신에 매춘하는 여자가 많이 올라 있다거나, 어디 가면 여고생 접대부가 많다는 따위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매춘방법에 접근해 보고싶은 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어, 매춘의 수요층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돈벌이가 급한 잠재적인 매춘의 공급원(대개 가출한 미성년자)에게는 매춘에 접근하는 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된 여학생 중, 가출을 결심하고 있거나 이미 가출한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탈선의 길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일반인들에게 하위문화를 전파하고, 매춘을 부추기는 가이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던 것은 98년 6월 16일에 방송되었던 MBC <PD수첩> ‘원조교제’ 였을 것이다.

여기서 기자들은 고객으로 가장하여, 어디에 가면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지, 여학생들의 매춘 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한 어떻게 하면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본 남성들은 어렵지 않게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게될 수 있었으며, 원조교제를 원하는 여학생들은 아주 쉽게 매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남성적이고 퇴폐적인 카메라의 시선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정적인 소재와 동반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카메라의 시선(앵

글)이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때, 카메라의 시선(앵글)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선정적인 소재에 치우쳐 있듯이, 카메라의 시선도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편향되어 있다. 카메라의 시선이 매우 남성 중심적이고 퇴폐적이라는 것이다.

남성들의 잠재적인 훔쳐보기를 자극하고, 선정적인 소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카메라는 여성들의 몸을 훑어 내린다.

98년 6월 16일 MBC <PD 수첩> ‘원조교제’ 편에서는 거리를 배회하는 10대 여학생들의 하반신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여성들의 둔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화면은 마치 길거리 잡지의 선정적인 기사를 장식하는 조잡한 사진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 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화면인 것이다.

남성중심의 카메라 시선은 98년 6월 28일 방송한 SBS <주병진 데이트 라인>에서도 보이는데 투시카메라를 다루면서, 수영복을 입은 남녀모델의 ‘몸을 훑는’ 등 선정성 짙은 화면을 내보냈다.

이 투시 카메라는 선정적인 소재로는 제격이었는지, 6월 9일 KBS <뉴스 9>에서도 투시카메라를 소개하면서 불필요하게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한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오랫동안 내보내기도 하였다.

결국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중심의 카메라 시선에 중독 되고, 여성을 훑어 보는 선의의 공범이 되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카메라 시선의 의도는 결국 남성들의 잠재적인 성적욕구를 대리 만족시켜주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발상임에 분명하다.

선정적인 소재에 치우치는 이유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정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독 올 해 들어 선정적인 아이템이 몰려 있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선정적인 아이템이 늘게 된 이유로 가장 꼽고 있는 것은 올해 경제난으로 인한 광고 판매율 급감이다. 또한 MBC <PD수첩>과 SBS <뉴스추적>은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더 많이 끌어야만 하는데 선정적인 소재만큼 좋은 것은 없다.

MBC <PD수첩>은 비교적 소재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나, 같은 시간대에 편성된 SBS의 <뉴스추적>에 밀리게 되자, 98년 6월 선정적인 소재를 연달아 3주(비아그라, 성 혁명의 묘약인가, 공주다방 4자매의 인생유전, 원조교제 : 10대 신중아르바이트) 방송

하는 처방을 내렸으며, 의도대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선정적인 소재를 연속으로 3회 방송한데는 이유가 있는데, 한 번 몰아치기로 단숨에 SBS <뉴스추적>에 뒤처지던 시청률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연속방영의 또 다른 이유는, 선정적인 소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한 번 크게 한탕을 하고 비난도 한 번에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간간이 선정적인 소재를 끼워넣게 되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야 하나, 한 번 크게 매를 맞고 말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언론사 자신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BC <PD수첩>은 모순되게도, 98년 2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선정적인 프로그램 아이템 문제”를 적시하고서 4달이 지난 후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6월에 연속적으로 선정적인 아이টে을 연속 방송하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만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선정적인 소재를 선호하는 다른 이유로는 ‘취재의 용이성’도 들 수 있다.

선정적인 소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출한 청소년이나 매춘부등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므로, 마음껏 취재를 할 수 있다. 단지 몰래카메라만을 들고 손님을 가장하여 잠입한 후, 그들의 생생한 음성과 화면을 따오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권력층이 아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의 압력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명예훼손 공방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방송사들은 경제거품시대에는 과소비, 사치를 부추기는 트렌디 드라마류를 유행시켰고, 이제 IMF 한파로 인해 광고수주가 줄어들자, 시사교양프로까지 선정적 상업주의로 물들이는 잘못을 다시 범하고 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선정적인 프로가 높은 시청률로 이어지고 이어서 높은 광고 수수율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시청률의 저조가 곧 프로의 폐지를 의미하는 방송환경이 제작진을 선정성의 ‘단맛’에 길들게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고발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시청률과 광고를 겨냥한 이 같은 “TV 매춘”이 돈과 쾌락을 위한 ‘그들의 매춘’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취재과정의 문제점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문제는 선정적인 소재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며, 취재과정에서 더욱 드러나게 된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사회병리를 드러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취재과정 자체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게되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것은 언론에 은근히 배어 있는 특권의식과 독선적인 태도 때문일 것이다.

몰래카메라와 유인취재

98년 6월 16일 방송된 MBC <PD수첩> ‘원조교제’ 편에서는 취재진이 원조교제를 원하는 중년남자로 가장해 여고생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여관까지 가서 노골적인 인터뷰를 하였으며, SBS <뉴스추적> ‘매매되는 탈북자들’ (6월 2일)편에서는 수요자를 가장해 매매꾼과 접선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두 편 모두에서 유인취재와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었다.

흔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몰래카메라와 유인취재이다. 몰래카메라만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인취재와 병행하게 된다.

몰래카메라는 상대방 모르게 카메라를 숨기고 그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담아내는 것이다. 물론 몰래카메라에 자신이 찍히는 사실도 모르고, 취재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화면으로 처리되고 음성이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불쾌한 것은 당연하다.

몰래카메라는 자신의 사적공간을 동의 없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시청자들이 즐긴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가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사적공간이 침해받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반대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점을 찔렀다는 생각 때문에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몰래카메라 기법은 사실 일반 대중이 가진 가학성(새디즘)을 자극할 수 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자주 몰래카메라 기법을 접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훑쳐보기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켜 자신도 은연중에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몰래카메라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SBS <뉴스추적> ‘누군가 엿보고 있다’ (3월 31일 방송분)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백화점, 여자 화장실, 리브호텔, 비디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특히 비디오방에서 남녀가 속옷을 입고 벌

이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약간의 모자이크 화면으로 처리된 채 방송되었다.

그러면서 말미에는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사실 몰래카메라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곳은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지적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었다.

그동안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거리낌없이 방영했던 몰래카메라 기법이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따라하기를 부추겼다는 것을 잊은 것이다. 물론 꼭꼭 숨어있는 사회병리를 밝히고 취재하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시사고발프로그램이야 말로 적법하고 도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실리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없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면, 과감히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시사프로그램들이 몰래카메라로 잡아낸 것은 뒷골목의 하위문화에 대한 고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여 밝혔던 일들이 권력층의 부패사실이라면 누구나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힘 있는 집단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의 필름이 돌아간 적은 없다. 단지 이들이 가방 안에 숨겨 들어간 카메라에 잡힌 것은, 심야영업실태, 미성년자의 매춘, 퇴폐 이발소, 전화방 뿐이다.

결국 몰래카메라는 뒷골목에서만 머물면서, 대중들의 저급한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하위문화의 전파에 앞장섰을 뿐이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희생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몰래카메라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방송국에 가서 항의를 하거나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못한다. 이런 점을 방송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놓고 몰래카메라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방송사 자신이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상납받는 부패한 관료와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몰래카메라보다 도덕적으로 더욱 나쁜 것은 ‘유인취재’이다. 우리는 교통경찰의 함정단속에는 분노하면서도, 이런 시사고발프로그램의 함정취재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 몰래카메라가 소극적인 방법인데 비해 유인취재는 함정을 만들어, 상대방이 걸리기를 기다렸다는 적극성이 숨어있다.

어떤 비행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의 현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인취재의 예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고생 2명을 가출소녀로 위장해 인신매매범을 서울역에서 유인했으며, MBC <PD수첩> ‘원조교제’ 편에서는 제작진이 원조교제를 원하는 중년의 남성으로 위장해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과 여관방까지 가기도 했다. 또 아주 위험스럽게도, 어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원조교제를 원하는 여학생으로 가장시켜 어떤 남성의 차에 올라타게 하고 미행

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유인취재에 걸린 남성이 범법자였거나, 미행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그 여학생은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는 교통경찰과의 합정단속과 유인취재는 다를 것이 없다. 둘 다 명분은 범법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법상의 문제를 자꾸 잊게 되다보면, 결국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본연의 뜻은 없어지게 되고 치졸한 고발에 머물 뿐이라는 사실이다.

강압적 인터뷰와 인권침해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면, 우리는 자주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취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된다. 그런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취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방영된다. 좀더 공격적인 기자의 경우에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한다.

이때 시청자들의 귀전을 때리는 기자의 음성은 흥분되고 격양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시사고발프로그램을 보면서 간과하는 점은 과연 방송사의 인터뷰를 꼭 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마치 기자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자들이 흔히 인터뷰 대상에 대해 마이크를 들이대고 자백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분명히 방송사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공익단체에 불과하다. 누구도,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초상권을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사고발프로그램뿐 아니라 뉴스시간을 보게되면, 기자들은 집요하게 인터뷰를 강권하고, 이를 거부라도 하게되면, 보복적으로 그 대상의 얼굴을 일부러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강압적인 인터뷰는 몰래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가출한 소녀, 술집 종업원, 퇴폐 유흥업소의 종업원에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야영업이나 매춘현장을 단속할 때 기자들은 형사들의 뒤를 바짝 뒤쫓으며, 인터뷰를 강권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특히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반말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몇 살이나?” “언제 가출했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부모가 아는가?” 등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기 위해 반성을 유도하는 질문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아느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등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음놓고 강권하는 이유는 이들은 대부분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마음놓고 인터뷰를 강요하며, 노골적인 질문들을 해대는 것이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이처럼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를 강권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그들도 당연히 기자들의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방송기자들은 인터뷰를 강요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의 당연한 권리-우리의 자유의사대로 취재를 거부할 권리”를 자꾸 반복되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시청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취재구성의 문제점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심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방송국의 편향되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이끌고 나가거나, 대안 없이 흥미 있는 사례만을 나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다툼이 있는 사례를 보도할 때 많이 발생한다. 이런 예로는, SBS <뉴스추적> ‘아동 성추행’ (98년 10월12일 방송분)편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 원생이 유치원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이 아이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들이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간간이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와 절망도 담아 시청자들은 이미 원장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생기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원장에 대해서는 분노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삭히고 있을 즈음, 난데없이 가해자의 변명이 모자이크 처리 화면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미 그때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이 2/3가량 지난 후 였다.

이때쯤에는 시청자들은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가해자의 범행을 확신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물론 가해자로 추정됐던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유치원의 건물 구조상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하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남은 시간이 10여 분 정도,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기자는 아동성추행의 대책이나 원인 등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성추행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것이 아니라,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나열했을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사실 이 프로그램 한 편만으로 현재 각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의 취재구성의 문제를 모두 읽어낼 수 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는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이 흔히 저지르는 편향된 시각과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약자의 입장을 동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취재진도 사람인지라, 피해자의 입장만을 두둔함으로써, 객관성을 잃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방영해 주었다. 그러나 양쪽의 입장이 방송시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말았으며, 피해자의 경우 부모들의 울부짖음과 한탄을 끼워 넣어 줌으로서, 시청자라는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문제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이다. 이미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치원 원장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터인데, 만약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도대체 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방송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는 아무리 시정방송을 해도, 이미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상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의 재판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번의 재판기회를 주게 된다. 이유는 만에 하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한 여론재판은 단심으로 끝나 버린다. 또한 언론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소명의 기회마저 거부하기 때문에, 한 쪽의 주장만이 방송에 나가게 됨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미 범인을 단정한 제작진은 교묘한 편집을 통해 가해자를 진범으로 몰고 말았다. 따라서 그는 현재 실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의 판결은 받은 상태가 되고 말았으며, 그는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은 혹시 모를 시청자들의 편견(무조건 피해자의 주장이

옳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입장을 방송초반에 들려주어야 했으며, 방송시간의 비율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동등하게 할애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이런 개인적인 다툼이 있는 소재를 다룰 때,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소위 약자나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고 만다. 그렇게 됨으로서 객관성을 잃게되고,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사실성 부여' 라는 미명하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이외의 인물을 비추거나 주관적인 매도, 감정의 표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특수 화면처리와 음성변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화면을 보면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을 영상에 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엔 미흡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시사고발프로그램처럼 흥미 있는 사례만을 나열하여 시청률에 영합했을 뿐, 왜 방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심층적인 아동 성추행의 문제점이나 발생정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안이 결여되어 있어 어린 딸을 가진 부모에게 위기감만 조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의 취재구성의 문제점인 편향된 시각과 주관적인 판단,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사례의 나열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접근,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화제성 위주로 제작됨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까지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의 방송 보도실태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편이다. 방송사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사 자신의 자체견제와 자기 스스로의 정화의식이 없이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취재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보호를 위해, 사내외(社内外) 옴부즈맨을 도입하고, 제작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가의 고용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작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법률을 검토해야하고, 일종의 법률자문그룹 자문이 기획과 취재단계에서부터 이뤄져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성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시청률에 의존하는 행태를 자제하고 선정시비를 벗고 공익보도 기능을 실현하려면 소재 폭을 넓히고 심층 주제를 다뤄야 한다. 즉 사회부조리나 인권문제 등을 과감

하게 다루어 ‘힘있는 프로’ 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3사가 대량편성하고 있는 흥미위주 다큐멘터리들이 길거리의 싸구려 잡지들과 다를 바 없는 ‘엘로 저널리즘’ 을 지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연다큐멘터리 등 진지하고 공들인 다큐멘터리보다 시청률에 연연한 흥미 위주의 유사 다큐멘터리가 양산되는 것은 우리 방송의 낮은 수준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시청률을 경쟁 말고도 이들 프로그램들이 연성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아이템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외압에 약한 방송구조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로는 MBC <PD수첩>이 98년 3월 10일 신문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으나, 결국 17일에 방송예정이던 ‘권언유착의 실태’ 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기연기 하고 말았다.

또한 정권교체기였던 98년 1월부터 MBC <PD 수첩>(새 정부 이대로는 안된다. 대한민국 공무원 해고란 없다, 비자금 숨은 돈을 찾아라)과 SBS <뉴스추적>(재벌의 족벌 경영등)은 서로 경쟁하듯이 그 동안 금기시하였던 , 안기부, 재벌, 공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보냈으나, 이것도 시류에 영합한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정권교체기의 강한 개혁분위기에 편승했을 뿐, 지속적으로 개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언론사는 국민들에게 자성을 촉구했다. 언론사 자신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사회분위기가 경제한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새로운 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방송사들이 먼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말았다. 개혁의 기운이 사그라 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방송사들이 다시 몸을 사리고 연성적인 소재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방치한 것에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흐름을 미리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할 언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국민의 호화 사치소비에 기름을 부었으며, 정말 짚어 내야 할 경제와 정치의 낙후된 모습 등은 외면해서 결국 환란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언론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맥락을 짚어냈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방송사도 시청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만은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이 프로는 시사고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만다. 시사고발프로그램만이라도 시청률과 외압에 의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뒷골목을 뒤흔으며 흥미위주의 소재만을 찾아다닐

때, 자신들이 자임하는 제4의 권력이라는 힘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청률과 외압에 견딜 힘이 없다면 차라리 시사고발프로그램이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시사고발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며, 만약 시청률과 외압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게 현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진정한 몸짓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